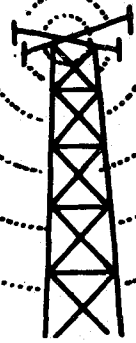


11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안그런척 하는 마음

옛날에 갑돌이라는 총각과 갑순이라는 처녀가 한마을에 살았었다고 한다.

둘이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고백하기는 커녕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척 위선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다른 짝을 맞아 시집과 장가를 가게 되었고 이들은 결혼 첫날 달을 쳐다보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며 그 까짓것 했다고 한다. 이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으며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다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자존심으로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종말을 맺고 말았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노래가사이지만 이 노래가 우리에게 널리 불려지고 있는것은 우리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생활을 하고 공감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흔히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정계도 여야간 또는 같은정당 내에서도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있어 서로가 필요로 하는 목적은 같으면서도 안그런척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같다. 아마도 우리의 국민성이 소극적이고 체면을 너무 중히 여기기 때문에 한쌍의 부부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중매장이가 필요하였는지도 모르겠다.

양계업계도 가끔보면 답답할때가 많다. 우리가 보기에 병아리가 안팔리고 생산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공식회의나 모임에서는 안그런척하고 자기집 병아리는 부족하여 팔리고 있다는 허세를 부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품질문제, 가격문제, 외상대금문제로 고민하면서도 안그런척 하는 사료공장, 동물약품회사, 부화장들이 이들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것은 스스로 문제를 안고 걸어서

는 안그런척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크고 적은 많은 회의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개별로 접촉하여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할때와는 전혀다른 대화가 이루어 질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안그런척하는 풍토가 우리 업계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안그런척 하는 자세가 어느 시기를 넘으면 갑돌이와 갑순이 처럼 비극을 초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에 가서 달보고 그까짓것 하며 눈물흘려도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서로 대화의 단절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는 비단 갑돌이와 갑순이의 경우 외에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업계와의 대화가 단절될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부나 업계가 서로의 속마음을 표시하지 않고 안그런척 할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흔히 보는 조찬회나 세미나등 각종회의로 시작되어 회의로 끝나는 현대사회는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정부 학계 업계가 격의 없는 대화가 원만이 이루어 질때 갑돌이나 갑순이의 비극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갖자고 하면 안들어보아도 다안다는 말을 하는 갑돌이와 같은 지도급 인사를 종종 보게된다.

경기가 더욱 나빠져서 하루빨리 자연도태로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도 다함께 사는길을 찾자고 외치는 갑돌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구조개선이 필요한 것을 잘알면서도 안그런척 하는 위선때문에 불황이 장기화 되지는 않는지?

진실을 고백하고 뜨거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어느때 보다는도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조상인 양반들은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쭈시며 게트림을 하여야 하고, 삼부덕위에도 행전까지 치고 다녀야 했기 때문

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태어나야만 하였고 갑돌이와 갑순이의 후예인 우리들도 냉수를 마시고도 갈비를 먹은척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월간 양계는 창간 10주년을 기해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고 각계 각층을 이 대화의 광장으로 참석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 대화의 광장에서만은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만이 필요한 것이며 안그런척하는 자세는 달을 쳐다보며 그까짓것 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솔직한 대화의 광장역할을 10돌을 맞는 월간양계가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도 편달을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양계업계에
단비는 언제 오려나**

가물어 메마른 양계업계에 단비는 언제 오려나, 78년말부터 시작된 불황은 금년에와서 극히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는듯하다가 이제는 더욱 깊은 늪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것 같다.

이 불경기가 오는 원인과 대책은 본지 7월호에 자세히 분석검토된바 있다. (오봉국 박사 집필)

부로일러의 경우 생체kg당 350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으며 부로일러 초생추는 얼마전에 1수당 50원까지 한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들리더니 이제는 아예 값은 고하간에 한번 길러보라는 식의 강제 기부행위까지도 있다고 한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한 실정때문에 축산진흥회로 하여금 지난 19일부터 닭고기 수매 비축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농업경제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쇠고기 대량수입 후 肉類간에 수요대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과거에는 양돈 산란계 부로일러 별로 불경기가 와도 따르따로 모든것이 이제는 모든 축산분야가 함께 불황의 국면에 접어들게 되어 더욱 해결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제 양계업계는 그간 규모확장과 금년도 전반기의 불경기로 메마르래로 메마르고 있으며 사채로 견디던 업체도 더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어 단비가 내리지 않을경우 고사(枯死) 하

증계입식 현황

월 별	산 란 계	육 용 계
78. 1	81,600	85,136
2	57,800	45,717
3	73,438	198,210
4	76,270	193,180
5	124,611	204,500
6	101,885	125,140
7	66,615	75,960
8	15,650	49,530
9	6,650	43,950
10	14,110	42,190
11	18,360	58,850
12	23,610	58,240
소 계	660,599	1,180,603
79. 1	42,630	105,260
2	43,810	150,310
3	43,800	248,400
4	50,050	145,980
5	40,475	120,830
6	54,717	120,140
7	28,460	109,885
소 계	303,942	1,00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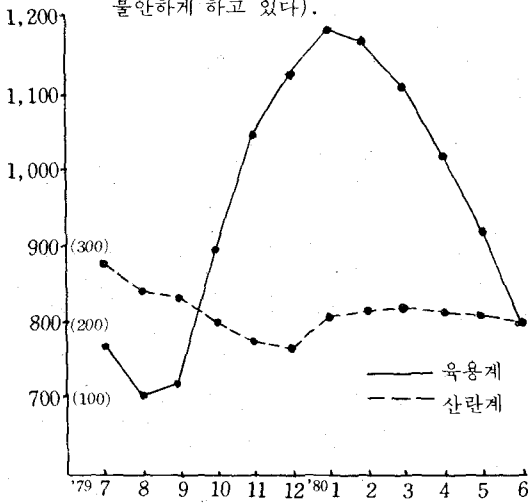
월별 실용계 생산 가능수 추정

월 별	산 란 계	육 용 계
79. 7	2,795,776수	7,616,815수
8	2,560,647	7,021,131
9	2,389,983	7,181,272
10	2,053,535	9,058,293
11	1,875,702	10,500,532
12	1,835,207	11,340,003
80. 1	2,046,241	11,825,422
2	2,198,492	11,709,700
3	2,228,754	11,054,952
4	2,213,149	10,233,622
5	2,164,902	9,220,007
6	2,040,651	8,026,782

지 않을 수 없게 된것 같다. 언제쯤 단비가 올지 관상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월별 초생추(실용계) 생산가능수수(추정)

(비수요기에 육용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불안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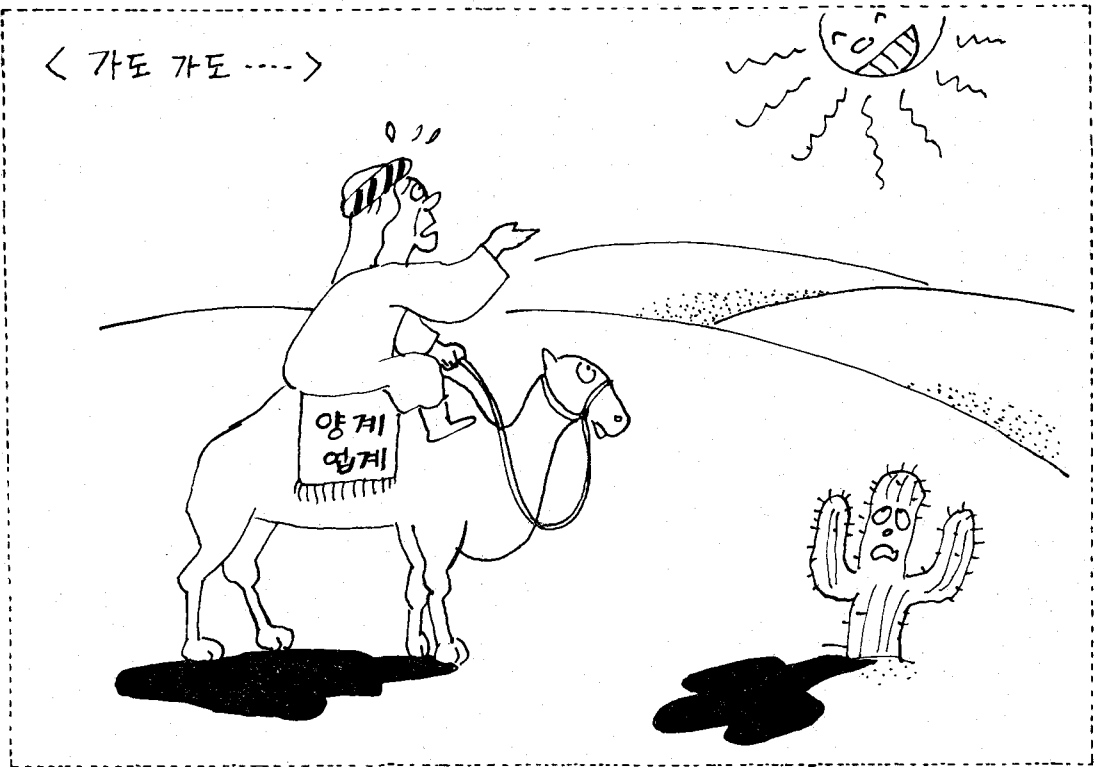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계 경기를 주도하는 부모일러의 경우 10월부터 초생추 생산량이 급증하여 80년 3월까지 1,100만 수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비수요기에 생산량이 편중하고 수요기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80년 3월까지의 경기 회복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극심한 부화업체의 불황이 예상되고 있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말이있고 우리 속담에도 콩심은 곳에 콩나고, 팔심은곳에 팔난다는 말과 같이 종계입식 잘못된곳에 불황과 물량부족등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업계의 격동만 심할 따름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단비가 올 가능성인 구름한점 없는 청청한 날씨라고 표현 할 수 밖에 없다. 양돈업계 불황의 장기화와 2만여톤의 수입최고기 돼지고기의 비축, 계절적인 닭고기 수요감소, 연말 자금사정등은 육용계 초생추 생산 잠재력 증가와 함께 부화업체를 비롯한 양계업체를 무겁게 누르고 있다.

전국 부화장 종계장 현황

(농수산부 '79 전반기 부화장 정기검사 결과)

시 도 별	종계장수(개소)	부화장수(개소)	부화기보유수(대)	총입란능력(개)
서울	3	13	98	1,197,000
부산	1	4	18	180,000
경기	78	76	712	10,868,652
강원	16	18	62	1,014,000
충북	14	12	56	642,920
충남	56	67	373	4,974,160
전북	56	58	217	2,729,000
전남	10	9	64	881,000
경북	47	34	150	2,125,300
경남	25	23	151	1,530,600
제주	3	2	7	80,880
총계	309	316	1,962	26,223,512



농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허가된부화장 수는 316개소이고 총입란능력은 2천 6백 만개를 약간 넘는것으로 되어있으나 우리가 알기로는 입란능력 2만백개의 부화장이 수개소나 되며 최근 10만개 입란능력의 부화장이 수십대 도입되어 이제 20~30개의 부화장이면 전국 병아리수요를 공급하고도 남게 되었다.

이제 부화업계라는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잎이 우거지는 70년대를 지나 2~3 십개의 알찬 열매를 맺은후 그 무성했던 나무잎들은 알찬 열매를 맺게 하기위한 역할만을 다하고 낙엽이 되는 시기에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어느 부화장이 잎이되고 열매가 될 것인가는 경영의 충실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인위적으로 가을이 되어 낙엽지는 것을 막는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하여야될 일은 그 많은 부화장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며 부화장으로 열매를 맺을수 없는 부화장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 지기 전에 채란 양계등 관련 분야로 바꾸도록 지도 계몽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흔히들 말하는 생산조절, 종계 입식조절로는 40여 부화장이 모두다 지탱할 수는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잉 생산된 양계산물의 비축, 종계입식 조절, 입란조절등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서 부화업에 희망을 가지고 시설확장을 할경우 불황은 장기화되고 우리모두가 침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바닥만한 구름한점 없는 맑은 하늘인데도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희망적인 일기예보를 믿고 하늘에만 기대하기 보다는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일이 공적자 모두의 책임인 것 같다.